
 문화체육관광부		<h1>보 도 자 료</h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01. 18.(목)	담당부서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담당과장	정가희(+49-30-26952-174)	담당자	정가희(+49-30-26952-174)		

〈만물만상〉, 〈영원한 기억〉

독일 국제 예술가 레지던시 ‘퀸스틀러 하우스 베타니엔’ 참여 작가
- 주독일 한국문화원 주최 감민경, 유비호 작가 2인전 -

주독일 한국문화원(원장 권세훈)이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문화원 내 갤러리 <담담>에서 부산예술재단 파견 작가 감민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견 작가 유비호 작가의 2인전을 개최한다. 2017년 독일 베를린 소재 국제 예술가 레지던시 ‘퀸스틀러 하우스 베타니엔’의 참여 작가로 선정된 작가 2인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난 1년간 독일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은 2월 1일(목) 오후 7시이다.

두 개의 개인전 동시진행, 색다른 2인전

“세상을 담아내고자 하는 인간의 원함은 본질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아무 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감민경 작가는 <만물만상>이라는 제목 아래 전시를 진행한다. 보는 행위가 결국 보이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작가는 시각적 경험과 실질적 인식 사이 간극을 흑백의 회화작품 속에 그려내며 최종적으로 결코 답을 수 없는 ‘텅 빔’을 구현해 내었다.

유비호 작가는 한국전쟁 당시 중학생이었던 남한으로 탈출해 노인이 되어버린 한 사람의 인터뷰에서 영감을 받아 <영원한 기억>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비극을 가지고 있는 난민들을 노인으로 특수분장하여 촬영한 작가는 그리움과 아픔을 은유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통해 보여준다.

작가 2인의 현지 작품 활동의 결과물을 최초로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두 개의 개인전을 동시 개최하여 2인전의 형태로 진행한다. 관람객들은 2018년 갤러리 담담의 첫 전

시 <만물만상>과 <영원한 기억>에서 두 종류의 볼 수 없음, 즉 스스로 볼 수 없는 인간의 모습과 강제적으로 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독일한국문화원 권세훈 원장은 “현대미술은 단지 예술작품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시대정신을 배울 수 있다. **감민경 작가와 유비호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사회의 분위기와 가시적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를 구축하였다. 작가들의 예술적 탐구를 통해 입체적으로 현대 지적·사회적 동향을 체험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 작가소개


감민경(1970) : 부산대에서 미술 석·학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제 5회 하정웅 청년작가전 및 부산공간화랑 제 15회 부산청년미술상 수상자였으며 지금까지 부산, 일본 및 독일에서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매해 국내 외 전시에 참여하였다. 작가는 시각은 더 잘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각체제와 보는 주체에 관심을 가지고 20년 가까이 작업 활동을 해 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화 및 설치작품을 통해 인식론적 문제와 개념적 한계를 제시한다.

유비호(1979) : 홍익대 회화과 학사, 연세대 미디어아트 학사과정을 수료한 작가는 서울 썸스페이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러시아 바이칼 노마딕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수많은 개인전 및 국내외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서울 성곡 미술관 2013년 내일의 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된바있다. 전시뿐만 아니라 서울독립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화제와 미디어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작가는 잊혀져 가는 삶과 버려진 것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회적 재난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한 연민을 영상, 사진, 사운드 등을 통해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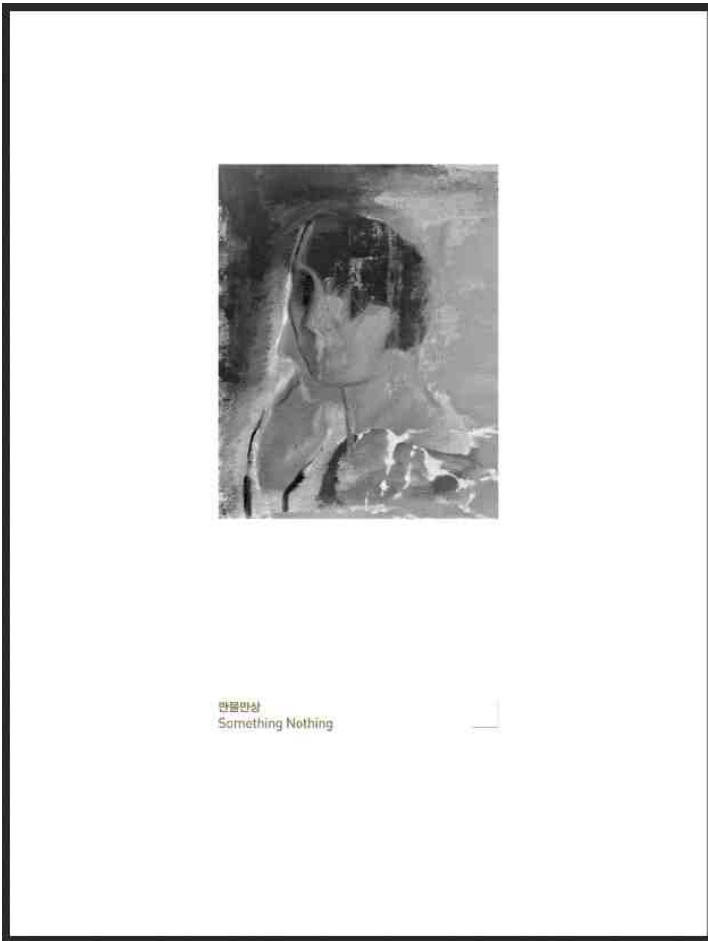
□ 행사정보

- 행사명: 감민경, 유비호 2인전 <만물만상>, <영원한 기억>
- 전시기간: 2018.2.1. ~ 2018.2.24.
- 개막식: 2017.2.1.(목), 오후 7시
- 장소: 주독일한국문화원 갤러리 <담담>
- 주소: Leipziger Platz 3, 10117 Berlin
- 입장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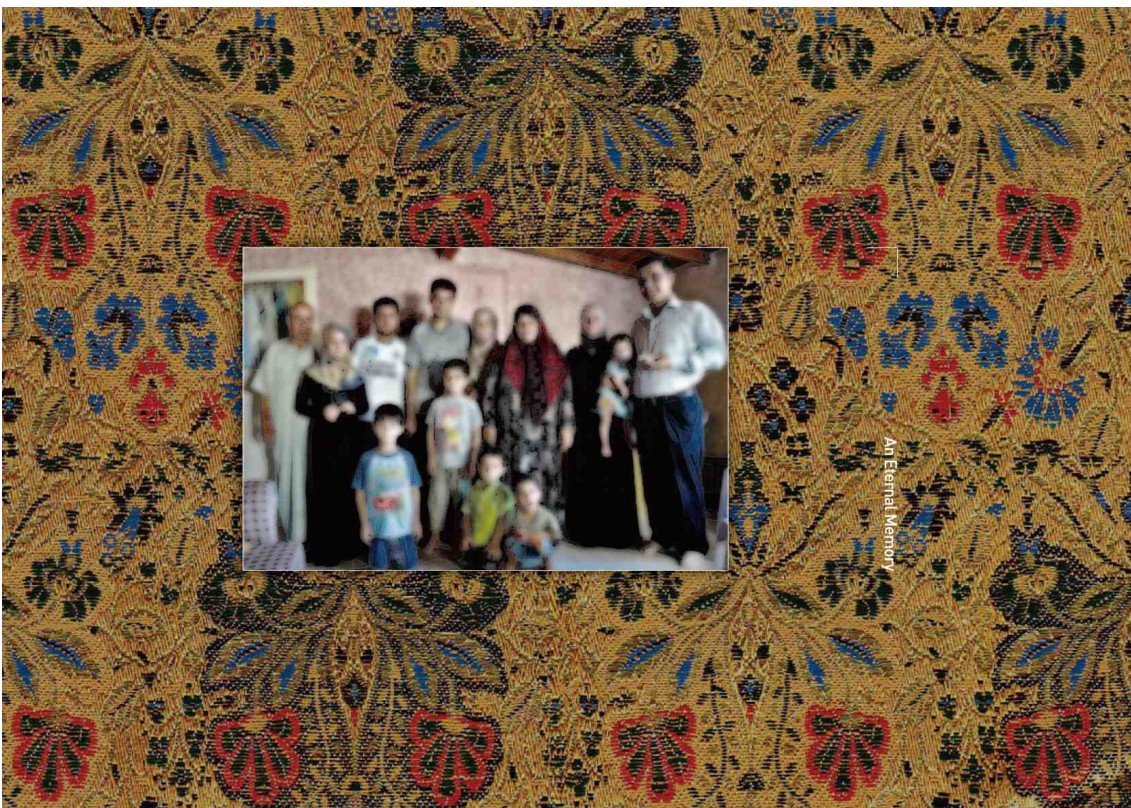
붙임 1. 전시회 홍보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독일한국문화원 큐레이터 정가희(☎ +49-30-26952-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1. 전시회 홍보물



감민경 <만물만상>



유비호 <영원한 기억>